

콘크리트용 고강도 접착제 개발

북한, 방수효과도 큰 PO-C-2-100 개발 ... 경제성도 매우 높아

북한이 화강석과 대리석을 콘크리트 벽면에 부착시키면서 방수효과도 있는 고강도구조접착제 PO-C-2-100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월3일 보도했다.

선봉무역총회사 산하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접착제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접착력이 뛰어나 대리석 등을 붙일 때 스테인리스강이 없어도 고정성이 보장돼 자재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학사(석사) 박봉실씨는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“구조접착제는 날이 갈수록 시멘트의 세기가 커지는 것과 함께 접착세기도 점점 높아지며, 썩씨 영하 50도의 기온과 cm^2 당 12kg의 수압에서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깨진 시멘트 고정물도 잘 결합시킨다”고 소개했다.

특히, 방수효과도 뛰어나 물탱크에서 가스나 기름이 새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.

PO-C-2-100 접착제 공장의 책임자 민경철씨는 “종래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으로, 적은 생산원가, 높은 생산성, 경제적 실리 등으로 대외에서도 커다란 환영을 받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12/05>